▶▶ 매일 INDEX

5면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3년 만에 재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음 6월 17일) 제305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현장행정 도민 체감토록"

김관영 도지사, 감염병 확산방지 총력대응 등 주문
중앙부처 정책방향 분석 도정 과제 반영 협력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4일 간부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과 감염병 확산방지 총력대응, 여러 도정현안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농번기 농촌인력지원 추진상황,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자체 신종 감염병 방역 대응능력 향상 등 현안에 대해 중점토의가 이뤄졌다.

그 외에도 실국별 중요 협력사항과 더불어 현장행정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행정 결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의 적극해결을 주문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장행정 결과를 도민에 신속하게 알릴수 있도록 방문 후 1주일 이내에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기간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설명해 주는 등 현장 민원사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기업유치 노력과 더불어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을 적시에 해결하고,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관련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19 재유행 상황에 대응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우리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중이므로, 각 실국은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전북의 도정 과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김경수 기자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간부회의를 갖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 감염병 총력 대응 등 도정현안에 대한 대책을 당부하고 있다.

쌀 재고 과잉현상 해소

하루 두 끼 '밥심' 으로

도-전북농협, 범도민 쌀 소비 촉진운동 추진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6.9kg 30년만에 절반 ↓
하루 두 끼 쌀 소비시 1인당 1일 50g 소비량 ↑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북농협과 함께 쌀 재고 과잉현상 해소를 위한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라는 주제로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청 1층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등이 참석해 청내 직원 및 민원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쌀 나눔 행사와 쌀 소비 확대 홍보활동을 벌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1년 기준 56.9kg으로 1990년 119.6kg에서 30년만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만톤이 증가해 쌀 재고 과잉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도내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 값의 안정화를 위해 범 도민이 함께하는 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루에 쌀을 두끼만 소비한다면 1인당 1일 소비량이 50g 증가하고, 도민 178만명이 동참했을 때 1일 89톤의 소비가 증가하게 돼 농가, 농협 등 경영체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우리 국민 제1의 주식인 쌀의 소비 확대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 도민 다함께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도 및 유관기관 등과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전북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경쟁력 있는 전북 쌀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며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155.8g으로 공깃밥 한 그릇 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도민 178만명이 하루에 밥 두 그릇을 소비 시 일 89톤의 소비촉진 효과가 있으니 하루 두 끼 밥심으로 건강도 지키고 쌀 산업과 농업인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전북쌀 지키기 88릴레이 챌린지'에 1호로 참여하며 범 도민 쌀 소비촉진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앞으로 88명의 도내 주요 기관장들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88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주역·익산역, 한옥마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김경수 기자

14일 전북도청 1층에서 범도민 쌀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내 초중고,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 시작

대부분 13~29일 사이에 종업식
도교육청, 학교관리자료 안내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이달 13일~29일 사이에 종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13일 2개 학교를 시작으로 15일 13개 학교, 22일 가장 많은 205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며, 다음 주 중 전북지역 전체 765개교 대부분이 방학을 맞는다.

가장 방학이 빠른 학교는 학교 시설공사 관계로 지난 1일 방학식을 연 익산지원중학교며, 13일에는 이리부천초와 함열고가 방학에 들어갔다. 또 15일에는 전주양지초, 인봉초, 군산제일중, 익산부송중, 함열여중, 무주고, 상산고, 세인고, 완산여고, 전일고 등이 종업식을 갖는다.

가장 방학 시작이 늦은 학교로는 군산옥봉초, 완주화산초, 진안마령초, 정읍내장초로 오는 29일 방학에 들어간다.

또한 방학 기간이 가장 짧은 학교는 군산여고로 26일~8월 8일로 12일 간이고, 가장 긴 학교는 전주양지초로 15일부터 9월 4일까지 51일 간이다.

평균 방학 일수는 초등학교는 28일, 중학교 29일, 고등학교 24일 등이다.

한편 방학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여름방학 학교관리자료'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방학 과제는 줄이되 자율적으로 학생 주도형 과제를 지향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습 더딤 학생에 대한 방학 중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안전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관리자료를 만들었다"면서 "방학 중 학교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사항을 담은 학교관리자료를 참고해 방학 중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